

'양성평등' 역설한 페미니즘의 고전

문화평론가 유숙렬씨가 뽑은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



“여성 예술가들이 왜 적은지 의문을 품고 있던 울프는 그 이유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마저 가로막는 사회적 인습에서 찾았습니다. 그녀가 ‘자기만의 방’을 갖도록 권한 것도 인습의 벽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셰익스피어에게 예술적 재능을 지닌 누이가 있었다면 그녀는 과연 성공할 수 있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당시 사회는 여성이 아무리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타고났어도 그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했기 때문이다.

셰익스피어에게 누이가 있다는 가정까지 설정해 여성 예술가의 사회적 위치를 조명한 사람은 버지니아 울프였다. 그녀는 에세이 6편을 묶은 **《자기만의 방》**(이미에 옮김, 예문)에서 여성 예술가 또는 여성 전체의 사회적 제약에 대해 비판했다.

“울프는 여성 예술가에게 ‘자기만의 방’을 가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경제력과 독자적 생활 공간을 의미하는 ‘자기만의 방’은 사회적 제약을 넘어설 조건이었던 것이죠. 그녀의 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문화평론가와 일간지 기자로 활동하는 유숙렬씨(46)는 작품의 배경인 16세기뿐 아니라 우리의 할머니 세대만 돌이켜봐도 여성 예술가의 사회적 제약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나혜석 등의 여성 예술가들이 끝내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인습의 벽이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여성 예술가들이 왜 적은지 의문을 품고 있던 울프는 그 이유를 사회적 인습에서 찾았습니다. 그녀의 ‘자기만의 방’은 인습의 벽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인 셈이죠.”

이 책은 여성 전체에 대한 남성의 모순된 믿음도 열거한다. 이를테면,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여성은 영혼이 없어 천당에 가지 못한다는 등의 말을 통해 인습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보여준다.

울프는 작가로 활동하면서 여성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제약을 직접 경험했다. 따라서 그녀는 불평등한 사회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지만, 남성을 비하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양성성이 조화를 이뤄야 창조력이 나온다고 역설했다.

“요즘 여성들이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서야말로 적극적인 소비가 아닙니까. 책에서 자기만의 방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원진 기자

열린 마당

가장 좋은 책을 만들어 드립니다.

- ① 출판의 승부는 기획·편집에 있습니다. 저희 열린마당에서는 경험과 識見을 갖춘 頂上의 편집자·출판미술가·사진작가 등이 온힘을 모아 '21세기를 준비하는 출판물'을 기획·편집하고 있습니다. 雄飛하는 동반자이기를 기대합니다.
- ② 베스트셀러 생활도서·유아도서 및 교구·오디오·비디오 기획·제작의 광범위한 실적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 ③ 종합마케팅플랜에 근거한 표지·광고·팸플렛도 기획·제작하고 있습니다.

기획·원고작성·번역·편집·디자인·제작代行

110-121 서울 중로구 종로1가45 서울빌딩 601호
전화 : 739-0150(代) 팩스 : 739-0160



高品質의 제작

이때까지는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제판·인쇄·제본 등의 工程을 일일이 확인하여야 했고 인력부족 등으로 품질이나 납기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삼터미디어에 맡겨 주십시오. 책임제작시스템으로 정성스럽게 제작하여 高品質의 출판물을 납기일에 어김없이 납품하겠습니다.



110-121 서울 중로구 종로1가45 서울빌딩 601호
전화 : 739-0150(代) 팩스 : 739-0160
인쇄·제본공장 : 465-4707(代)